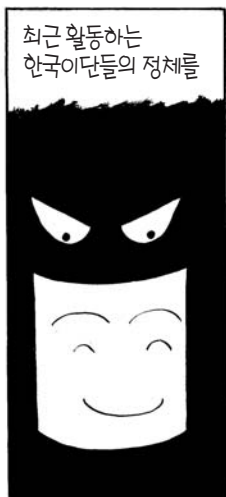




피터 데일리의 전쟁



Toonif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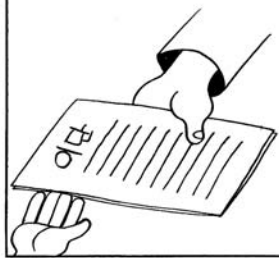
데일리의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감사합니다!
데일리씨!

이단 피해를 겪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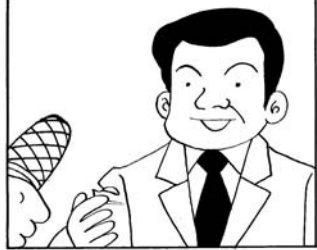
필요한 관련 정보도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이단 피해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공신력 있는 해외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단들의 피해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단을 조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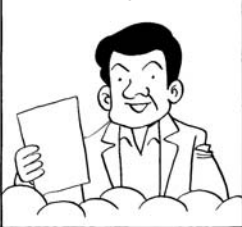
최근에는 호주 SBS
방송에서 10년 동안



JMS 대처활동을 해온 그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국내 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데일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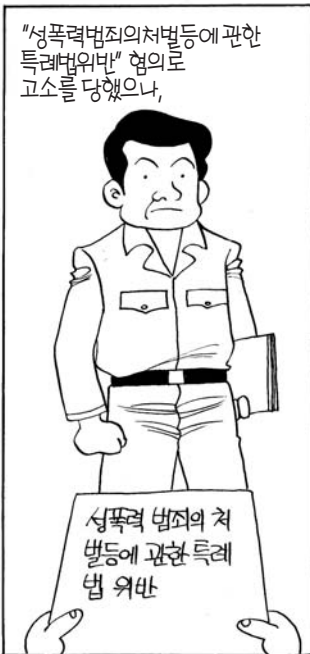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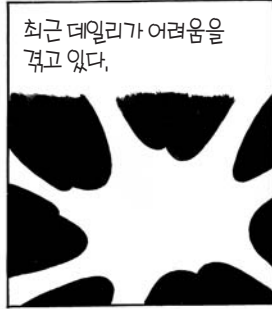


'한국이단 연구와 대처 활동'에
발을 내디딘 이유는 무엇일까?



데일리는 잘못된 종교단체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협박성 문자와 모독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다.

이럴수가!

이러한 협박은 데일리의 가족들까지 겨냥한다는 사실이 데일리를 힘들게 한다.

협박!

대학의 "최고의 강사상"도 수상한 축하합니다!

OO대학

데일리의 교육경력에까지 흠집을 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 행위로부터

한국 공권력이 데일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한국 공권력

한국 사회와 교회가 대신 나설 필요가 있다.

이단은 나쁘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

피터 데일리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이러한 협박성 문자를 보낸 JMS 신도는,

내말 잘 들어!

검찰에도 JMS를 돕는 사람이 있으니

JMS7개 충성!

검찰

피터 데일리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넌 감옥행이야!

